지역 소식통

고창-서울 청소년 교류활동 진행

고창군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공음중, 신림중, 성내중 3개교 중학생과 교사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일원에서 2박 3일간 '2017 고창-서울 청소년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고창군과 서울시의 우호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추진돼 온 교류 사업은 지난달 서울시 청소년들의 고창 방문에 이어 이번에 서울시의 초청을 받은 고창군 청소년이 서울을 방문했으며, 서울마포청소년수련관이 주관했다.

'서울과 함께 놀러와U, 서울'을 주제로 열린 교류활동의 첫날 청소년들은 숙소인 서울유스호스텔에서 대학생 멘토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음날 이루어질 조별 자유여행을 위한 기획회의를 했으며, 정동에 위치한 세실극장에서 소방관 훈련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파이어 맨'을 감상한 후 저녁에는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자유여행 시간으로 조별 멘토들의 인솔아래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명동, 대학로, 홍대입구, 경복궁 등 서울시내 명소를 탐방하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일정을 기록했으며 저녁에는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멋진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마포청소년수련관을 방문, 전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멋진 작품으로 완성한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읍 향교마을, 환경정비활동 나서

부안군 부안읍 향교마을이 최근 30여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속살 관광코스 중 하나인 편백나무 숲 진입로와 마을주변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비활동은 추석을 맞아 향교마을 및 속살관광코스를 찾는 관광객 및 내방객에게 청결한 부안읍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편백나무 숲 진입로 풀베기 및 곳곳의 방치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줍는 등 주민들이 합심해 추석 귀성객 맞이에 구슬땀을 흘렸다.

조용환 부안읍장은 "추석을 앞두고 깨끗한 부안읍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향교마을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지속적인 정화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서남해 해상풍력 진행 '순조'

해상변전소 하부 완료 · 10월 말 3기 풍력발전기 완공

위도 앞바다 서남 해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해상변전소 하부가 완료되고 다음달 말 3기 풍력발전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의 방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고 가운데 문재인대통령이 탈 원전을 선언,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장려 시점 해상풍력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산악지역에 다수의 육상풍력이 건설되어 가동 중이고, 해상풍력은 부안 위도 앞 바다에서 서남해 해상풍력이 국내 최초로 사업 착수하여 건설 중이다.

서남 해 해상풍력이 현재 연구 실증사업으로 부안-고창 앞바다에 3MW 용량의 풍력설비가 올해 3기, 2019년까지 총 20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은 해상변전소 하부가 완료되고 10월말 3기 풍력발전기 완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풍력 구조물은 해상에 기초만 건설된 상태로 아직 풍력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바다 한가운데서는 망망대해에 점이 찍힌 것처럼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 위도 앞바다가 건설된지 4개월 정도 지난 기초 구조물에는 미역과 따개 비가 붙어있고, 숭어 치어가 때 지어 다니는 등 새로운 해양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해상풍력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생태계를 잘 활용하여 양식이나 낚시와 같은 어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연구기관과 함께 찾고 있다"며 풍력설비가 완전히 설치, 운영되면 소음이나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어민 공존방안은 물론 운영 실태와 함께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도 앞바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황금어장으로 유명한 부촌, 칠산어장이였으나, 요즈음은 어족고갈은 물론 도시화 산업화로 인구 감소와 함께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바다 자원을 회복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현 정부에서는 친 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위도 앞바다 서남 해 해상풍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해상변전소 하부가 완료되고 10월 말 3기 풍력발전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고창군 정부 사업예산 1249억원 반영

전년 대비 34% 증가… 역대 최고액 확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고창군이 지난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1249억원 (2018년 당해연도 국비 기준)이 반영되어 고창군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국책사업에 총 145건 1596억원 규모의 국비확보를 목표로 지역정치권과 지역출신 유력인사, 중앙부처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설득해 왔다.

특히 박우정 군수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초 국가재정운용 기획 단계부터 지난 29일 정부예산 편성과정까지 총 31회에 걸쳐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중앙부처의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공조가 필요한 사업은 직접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사업별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 등 52건의 신규사업 국비 138억원과, 해리천·갈곡천·주진천·칠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억원(총 사업비 729억원), 해리 금평 및 공음 건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원(총 사업비 219억원), 흥덕면과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5억원(총 사업비 127억원) 등 78건의 계속사업 국비 724억을 반영하였으며, 전남도계~석정간 국지도 49호선 건설공사 70억원(총 사업비 298억원), 해리~부안간 국도22호선 확포장 공사 74억원(총 사업비 489억원) 등 국책사업 15건 386억원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되었다.

이는 정부의 신규사업 및 SOC 억제 기조에 따라 정부 SOC예산 20% 감소와 대부분 지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SOC 예산은 총 386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211% 증가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 온 박우정 군수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지금까지의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내역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일부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추가 반영 및 부처 풀예산 사업과 공모사업을 향후 소관부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년대비 40% 이상을 목표로 1300억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 '마을로 가는 소풍' 화제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 초 · 중 · 고교 1500여명 참여

정읍시 초·중·고생들은 지역 내 마을로 소풍을 떠난다.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마을을 찾아 자연을 관찰하고 주민들의 삶을 체험하는 등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면서 이해의 폭과 애정을 높인다.

정읍시가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마을소풍은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타 지역의 관광지와 놀이시설을 방문하던 그간의 소풍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알아가자는 취지다.

시는 학생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유익하면서도 마을 곳곳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마을해설사들은 마을공동체의 유래와 생활모습, 마을경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편리하게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마을지도도 제작해 배부한다.

시는 마을 소풍 운영과 관련해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전국 최초로 마을연금을 지급, 화제를 모았던 송죽마을 등 모두 20개 마을을 선정했다.

올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고, 정읍지역 18개 초·중·고교 1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정읍시가 공공실버주택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에서 제출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작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연계와 입면 디자인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커뮤니티 확보를 위한 공간 배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은 "삶의 온기와 일상의 다양한 색채가 샘솟는 곳에서 노년의 삶이 피어나다"를 주제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이다. 주요 시설로 지하주차장과 실버복지관, 실버주택 등 주요 시설을 담고 있다.

공공실버주택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25억을 더한 125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공공실버주택은 노인들이 주거·복지·건강·여가·경제활동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복합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이다.

건립 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설계용역 진행과 함께 11월까지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늦어도 2019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